



당신의 시대, 이제는 통일이다!



이슈 in 통일

최근 한 달간 언론사들의 통일 관련 주요 소식 및 이슈 모음



누아씨(NUAC)가 간다

제18기 민주평통 부의장·협의회장 합동 워크숍



당신이 통일주인공

손수 재배한 토마토로 과채즙 생산하는 김명희씨



통일돋보기

남한 자동차 북한 대중교통 이용 남북 추석명절 교통편



통일 웹툰
교통체증 사라진 한가위
한민족 대이동



선비정신의 '맛'
어우러져 살아가는 '맛'
경북 영주



북한 별미
평안도 조개송편



온가족이 함께하는
복불복 행복한
통일 사다리 타기 게임!

[이벤트③] 온가족이 함께하는 복불복 통일 사다리 타기 게임!



민주평통365일
NUAC News

文대통령,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평화를 말하다

8·15경축사서 전쟁 반대 명시…만드는 평화에 주목

장 용 훈(연합뉴스 북한전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됩니다.”라고 전쟁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전쟁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6·25전쟁이라는 비극을 경험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강점과 해방, 그리고 강대국에 의한 분단을 숙명처럼 받아들여만 했던 한반도는 결국 같은 민족간에 총부리를 겨뤄야 했고 그 아픔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래서 8·15경축사는 한반도가 더 이상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숙명이 아닌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 가겠음을 선언한 것이다.

일본의 강점과 해방, 그리고 강대국에 의한 분단을 숙명처럼 받아들여만 했던 한반도는 결국 같은 민족간에 총부리를 겨뤄야 했고 그 아픔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래서 8·15경축사는 한반도가 더 이상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숙명이 아닌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 가겠음을 선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호소는 8월 들어 뜨겁게 달아오른 한반도 긴장을 염두에 둔 것이다. 8월 9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솔직히 말해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름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 주(州)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기 소유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은) 정상 상태를 넘어 매우 위협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도 이날 오전 탄도미사일 운용부대인 전략군은 대변인 성명으로 미국을 향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로 광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위한 작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다음날 북한은 한 술을 더 떴다. ‘화성-12’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4발’로 광 주변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아예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밝혔다.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은 “우리가 발사하는 ‘화성-12’는 일본의 시마네(島根)현, 히로시마(廣島)현, 고치(高知)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천356.7km를 1천65초간 비행한 후 광도 주변 30~40km 해상 수역에 탄착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평화가 없이는 경제적 풍요로움도 없을 뿐 아니라
화목한 가족관계도 존재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위터에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명령은 우리의 핵무기를 개조하고 현대화하는 것이었다”며 “(이를 통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썼다. 여기에서 미국의 맥매스터 NSC 보좌관은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 가능성을 질문 받고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쟁, 예방전쟁을 말하느냐”고 확인한 뒤, “물론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군사옵션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한반도의 정세를 설명하면서 공공연하게 등장하는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이 선택한 것은 평화였던 셈이다.

사실 평화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의 언어였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북한에 밀사를 보내 김일성 주석과 면담하면서 한반도에서 두 번째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하며 평화는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미국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방안을 적극 반대하며 막았다는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그만큼 평화는 한반도에 절대적이다. 평화가 없이는 경제적 풍요로움도 없을 뿐 아니라 화목한 가족관계도 존재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인간의 파괴가 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김정은 정권의 존재를 인정하며
남북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의 원천으로서 평화에 주목하고 있는 셈이다. 이 평화를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 북한과 김정은 정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남북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 남북한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부부터 관계를 풀어가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베를린 구상’에서 이는 ▲한반도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 체지도 구상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을 제안한 연장선에 있다.



물론 여전히 한반도의 상황은 불안하다. 북한은 잇단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무기의 완성을 향해가고 있고, 미국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버릇을 손보겠다고 으르렁거린다. 또 남북대화 제의에 대해 북한은 응답도 없다. 현재 한반도에는 대화보다는 대결이 더 눈에 띈다. 그러나 대화는 대화가 없을 때 준비해야 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은 불안정한 시기에 더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추모사에서 “평화를 지키는 안보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안보로 한반도 평화와 경제 번영을 이루겠다”고 말한 것은 지금 이 시기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있다.

〈사진자료: 청와대, 연합뉴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4 선언과 평화 만들기

박종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21일 첫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10.4 정상선언이 채택된 지 10주년이 되었다. 10.4 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기초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협력의 기초를 놓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보수정부의 등장과 핵문제 악화 등으로 인해 10.4 선언은 첫 걸음을 떼기도 전에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정세는 그때보다 더욱 긴박해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임계점을 향해 치달고 있으며, 대북 예방타격론 등 한반도위기설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10.4선언은 평화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평화지키기(peace keeping), 평화만들기(peace making)를 위한 대화 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10.4선언의 평화담론과 기본 방향을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10.4선언이 내포한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를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지금 평화의 의미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6.25후 우리가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 국가위상의 격상은 전쟁이 재발하지 않고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됨으로써 가능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개인의 소소한 행복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한반도의 현실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최우선적인 국가목표이다.

10.4선언의 기본 취지는 우선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 통일이 궁극적 목표이지만 통일에 이르는 과정은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하다. 또한 평화 정착과 공존을 거치지 않은 통일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통일을 지향하되 우선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통일의 장점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평화를 우선시하고 평화정착과 남북협력을 통해 통일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10.4 선언의 기초와 맞닿아있다.





*비핵화와 함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10.4 선언은 평화공존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으로 남북한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상호존중과 신뢰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및 8.15 경축사에서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3불 원칙으로 천명되었다. 남북한의 상호 체제인정과 공존의 원칙을 토대로 평화정책과 남북관계 정상화의 구체적 경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10.4선언은 평화지키기와 관련하여 군사적 긴장완화, 전쟁반대, 불가침을 명시하고 특히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하였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구상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하였다.



*다방면의 교류·협력은 군사적 대립을 허물고
공존의 씨앗을 뿌릴 것이다.*



평화만들기는 군사 분야에서 평화체제전환과 함께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에 의해 다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해 비핵화와 함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논의가 구체화되면 10.4 선언에서 제시된 한반도 종전선언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 평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면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이익이 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교류·협력에 의해 사람, 물자, 생각이 교환됨으로써 이해와 신뢰가 형성되고 평화여건이 조성된다. 다방면의 교류·협력은 군사

적 대립을 조금씩 허물고 공존의 씨앗을 뿌릴 것이다. 이 씨앗이 자라서 숲을 이루게 되면 분쟁이 방지되고 그 자리에 평화가 자리 잡을 것이다.

평화만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더욱이 북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의 전망이 어두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10.4 선언에서 제시된 평화의 이상을 가슴에 간직하고 차가운 머리로 평화만들기를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진자료: 청와대, 연합뉴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슈 in 통일

이슈in통일은 최근 한 달간 주요 언론사들의 통일 관련 소식 중 이슈화 되었던 기사들을 모아 클리핑한 코너입니다.



中, 文대통령 北대화촉구 발언에 “남북대화 지지”

중국 외교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도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화를 촉구한 데 대해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더보기](#)



“북한, 핵 없이도 안보 걱정 없게 우리가 도울 것”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라며 ‘대화’를 강조했다.

[+더보기](#)



미국무부, ‘핵·미사일 실험중단’ 등 대북 대화 3대 조건 제시

미국 국무부는 16일 핵 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연행 중단 등 3대 조건이 선행되면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보기](#)



중국 대북 에너지 수출 ‘뚝’ “北 경제자립도 높아져”

북한의 경제 자립도가 높아지고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이 늘면서 중국의 대북한 에너지 수출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문화일보

“핵무장 贊” 62.8%
“선제공격” 反 64.8%

문화일보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핵 무장에 찬성하는 응답은 62.8%로 나타났다.

+더보기



러 외무부 “美 대북 군사공격은
지구종말론적 시나리오”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 위험이 실제로 이행되면 이 전쟁은 국제전으로 비화할 것이고 결국 지구종말론적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러시아 외무부가 경고했다.

+더보기

dongA.com

“트럼프, 어떤 옵션이든 한국 동의
받겠다 약속” 정상 대화

북-미 긴장 상황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북핵 사태의 ‘레드라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더보기

한국일보

을지훈련 참가 美 병력
작년보다 7,500명 줄어

한미가 21~31일 실시하는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참가할 미군 전체 병력이 지난해보다 7,500명 줄었다.

+더보기

J 중앙일보

“러시아 대북 수출 1년
새 2배 이상 늘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각종 석유 제품을 지난해보다 올해 북한에 더 많이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세계일보

9월 초 푸틴 만나는 文대통령
‘新북방정책’ 협력·비전 알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초 러시아 방문을 시작으로 향후 석 달간 4개 국을 방문하며 정상외교를 재개한다.

+더보기



“트럼프 대북정책,
미국인 43% 지지 vs 53% 반대”

조지워싱턴대학이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3%,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3%로 집계됐다.

+더보기



IAEA 북핵 연례보고서
“영변 경수로 공사장 활동증가”

북한이 영변의 5MW급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시설을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더보기

세계일보

9월부터 北여행 전면금지 北체류 지원활동 200명 어쩌나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9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아직 200여 명의 미국인이 북한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시사종합지 타임이 24일 보도했다.

[+더보기](#)

한국경제

“김정은 도발은 생존 위한 몸부림... 사드 빠른 배치가 中에도 ‘출구’”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도발의 근본적인 원인이 체제 유지를 위한 몸부림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보기](#)

세계일보

민주평통, ‘색깔’ 확 바꾼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문위원 구성에 변화를 주는 것을 시작으로 새 정부 성격에 맞는 기관으로의 탈바꿈을 예고했다.

[+더보기](#)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남북 공동 편찬
‘겨레말큰사전’을
아시나요?



겨레말큰사전은
남북한 학자들이 함께 만드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입니다.
오랜 분단으로 빚어진 언어 차이를 해소하고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1989년 故 문익환 목사가
 김일성 주석에게 '통일국어대사전' 편찬을 제안했고,
 이후 2005년 남북공동편찬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사전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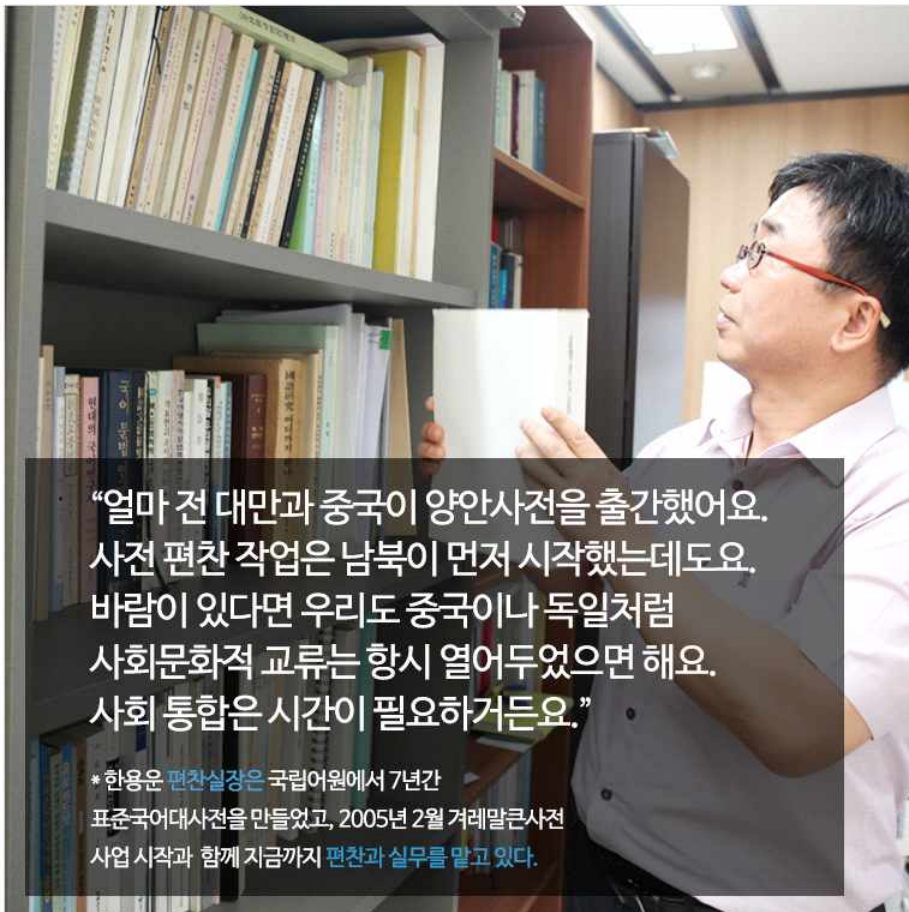


남북공동편찬위원회는
 고은 시인을 비롯해 2명의 문인과 8명의 사전편찬가들,
 북쪽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학자 1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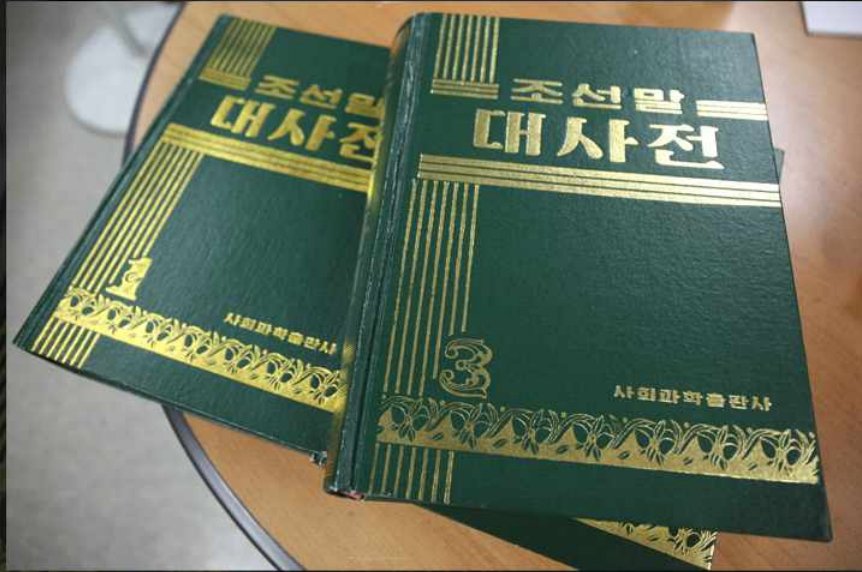
이들은 2005년부터 분기별로 모여
수룩할 어휘와 뜻풀이 방식을 논의하고
2009년 시범집필을 통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10년 남북관계가 어려워지면서
현재는 모든 만남과 연락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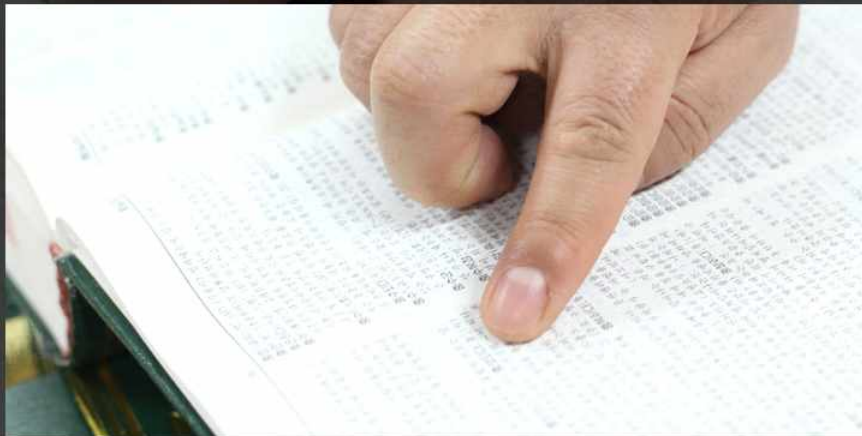


“얼마 전 대만과 중국이 양안사전을 출간했어요.
사전 편찬 작업은 남북이 먼저 시작했는데도요.
바람이 있다면 우리도 중국이나 독일처럼
사회문화적 교류는 항시 열어두었으면 해요.
사회 통합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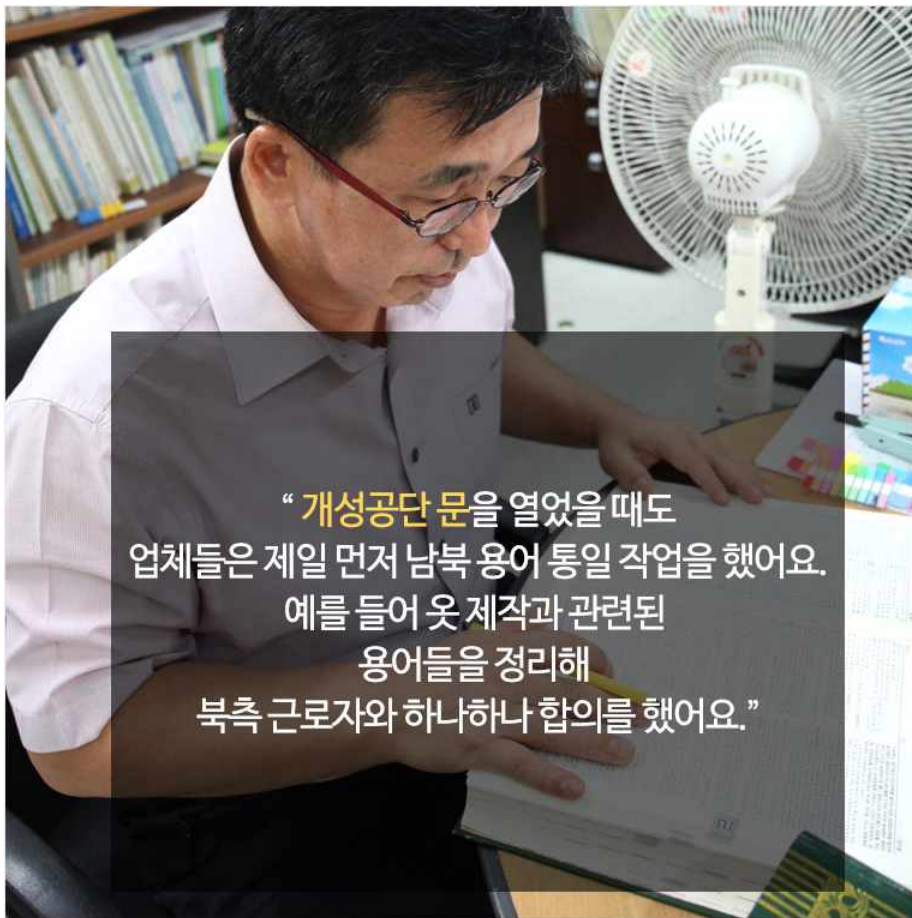
*한용운 편찬실장은 국립어원에서 7년간
표준국어대사전을 만들었고, 2005년 2월 거레말큰사전
사업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편찬과 실무를 맡고 있다.



겨레말큰사전에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에서 널리 쓰이는 어휘 20만개와 남북방언 및 해외 동포들이 쓰는 말 10만개 총 30만개의 단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남북사전의 표제어를 비교했을 때 일상용어의 35%, 전문용어의 66%가 차이나요. 전문용어의 경우 남북 전문가들은 제대로 소통을 할 수 없을 정도죠.”



“개성공단 문을 열었을 때도
업체들은 제일 먼저 남북 용어 통일 작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 옷 제작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해
북측 근로자와 하나하나 합의를 했어요.”



한용운 실장은
그야말로 철저한 준비를 해서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맞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서도
남북 사전편찬가들의 투철한 의지와 사명감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겨레말큰사전'
하루빨리 만나보길 기대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으니 별세상 같아요” 부활하고 있는 북한 은행

강미진(데일리NK 기자)



▲ 평양에 있는 북한 은행의 외화교환

최근 평안북도 삭주군에 있는 최모 주민은 양강도 해산시에서 군(軍)복무를 하고 있는 아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제대를 앞두고 산골군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을 위해 보낸 돈이라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는 최모 씨 부부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날 줄 모른다.

💰 5년 전부터 시작된 북한 주민 은행거래

은행창구에서 돈을 찾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 주민들은 “은행에서 돈을 찾으니 별세상 같다”는 북한 주민의 말이 선 듯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며 금융계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는 모습에 비하면 북한 주민들의 은행 창구에서 송금된 돈을 찾는 모습은 한국의 수십 년 전 모습이라고 하겠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마냥 신기할 뿐이다. 은행에서 자유롭게 돈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30여 년만의 일이기 때문이다.



▲ 평양정보센터에서 개발한 ‘전자결제카드’와 ‘출입카드’

또 다른 북한 주민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최근 은행을 통해서 개인 간 돈거래도 비교적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단 시간 동안에 상대방에게 현금이 전달될 수 있는 것과 인편으로 보낼 경우 만약에 있게 되는 분실사고 등을 겪지 않아도 되는 여러 조건들 때문이라고 한다.

평안북도 주민은 “다른 사람들은 5년 전부터 카드로 다른 곳에 돈을 보내기도 했다고 하는데 (나는)처음에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면서 “국가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면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 넣었다가 찾지 못할까 은행을 이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장사꾼들과 다른 주민들도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도 자기만의 계좌를 가지고 있을까?

돈을 보내는 주민과 받는 주민은 별도의 계좌 개설이 없이 은행에서 각각 전산카드를 구매한 후 서로 전산카드에 있는 돈 자리번호를 교환하면서 확인하고 돈을 찾는다. 한국의 은행들에서 여러 조건으로 이자 몇 %라는 대출금을 주는 식의 대출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을 위한 대출은 없다. 그러면 조선중앙은행은 주민들의 송금 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받아내고 있을까?

각 은행들에서는 주민들이 상대 주민에게 보내는 송금에 대한 수수료를 전산카드를 통해 받아낸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현재 북한 대부분 지역들의 은행들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산카드의 가격은 한 장 당 1만원이라고 한다. 송금을 자주 하지 못하는 주민이 어쩌다 1년에 한 번 송금을 해도 만 원짜리 전산카드를 사야하고 송금 횟수가 잦은 장사꾼들도 역시 1만 원짜리 전산카드를 구입해야 한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최근 몇 년 간 북한의 은행은 몰라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명무실한 국가기관이라는 이미지에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서서히 주민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 북한 단천은행 지부사무실이 있는 주베트남 북한대사관



주민들 스스로 돈 거래 시장을 형성하다

사실 북한에도 평양과 각 지역들에 중앙은행 지역 지점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90년대 중반 대아사 시기를 거치면서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어 버린 기관 중의 대표적인 것이 은행이었다. 국가 경제도 마비상태가 되면서 개인들이 은행에 맡긴 돈을 줄 수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은행의 초보 기능이 복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 북한 은행과 모든 화폐 거래를 중단하고 있는 중국의 캠페인

하지만 이런 것은 돈이 있는 주민들에게나 기쁜 일이고, 북한 경제가 조금씩 성장기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가진 것이 없어 남의 이자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계층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 시기 전국범위에서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 스스로가 돈거래시장을 형성했는데, 오늘날의 이자 돈 장사꾼들이 개인은행 창구 역할을 자발적으로 맡아 나선 것이다.

1990년대 중후반 국가계획경제로 인해 노동에 대한 보수가 무용지물로 된 상태에서 사경제에 발을 잠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의 주민들은 고리대금 이자 돈 거래를 시작했다. 이런 돈 거래는 날이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역별로 외화도 바꿔주는 개인 외환시장도 생겨나게 됐다.

현재 북한 내부에서 거래되는 북한 원화와 외환의 환율은 1달러 당 평양 8,100원, 신의주는 8,090원, 혜산 8,080원이고, 1위안 당 평양 1,200원, 신의주 1,170원, 혜산은 1,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북한 사경제 내 주민들이 환율변동을 통해 보는 이익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북한 돈 장사꾼들의 등장과 이윤 창출

이런 돈 장사꾼들은 바꿈 돈(원화 대 외환 바꿈)으로 1일 이윤을 창출하는 장사꾼들이 있는 반면 이자 돈으로 월 이윤을 기대하는 장사꾼, 그리고 불날에 하나를 주고 가을에 두 개를 받아들이는 고리대금 장사로 부류도 다양해졌다. 북한의 고리대금 장사는 도시보다도 농촌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주로 곡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에서는 고리대금이 성행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말이다.

이자 돈은 장마당 장사꾼들 속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 담보로 매대나 상품을 걸고 이자를 내주기도 한다는 것. 이자 돈 장사꾼이나 고리대금 장사꾼은 원금이 얼마인가에 따라 이익을 추정할 정도이지만 꾸어준 돈을 받기 위해 고도의 신경전과 폭력행위도 행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반대로 바꿈 돈 장사꾼은 환율변화에 따라 돈을 벌수도 있고 못 벌수도 있어서 이윤에 대한 정확한 추산을 할 수 없지만 자본금에 대한 안전성은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바꿈 돈 장사꾼과 이자 돈 장사꾼, 그리고 고리대금 장사꾼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현재 양강도 해산시의 대부분 지역들에서 이자는 월 12%, 8%, 5%로 돈주에 따라 이자율도 다양각색이다. 현재 이자율은 2015년 7%, 5%, 3%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책정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이자 돈을 사용하려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위한 금융정책과 관련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주민들의 사채업자를 통한 거래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자료: 연합뉴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한 자동차 북한 대중교통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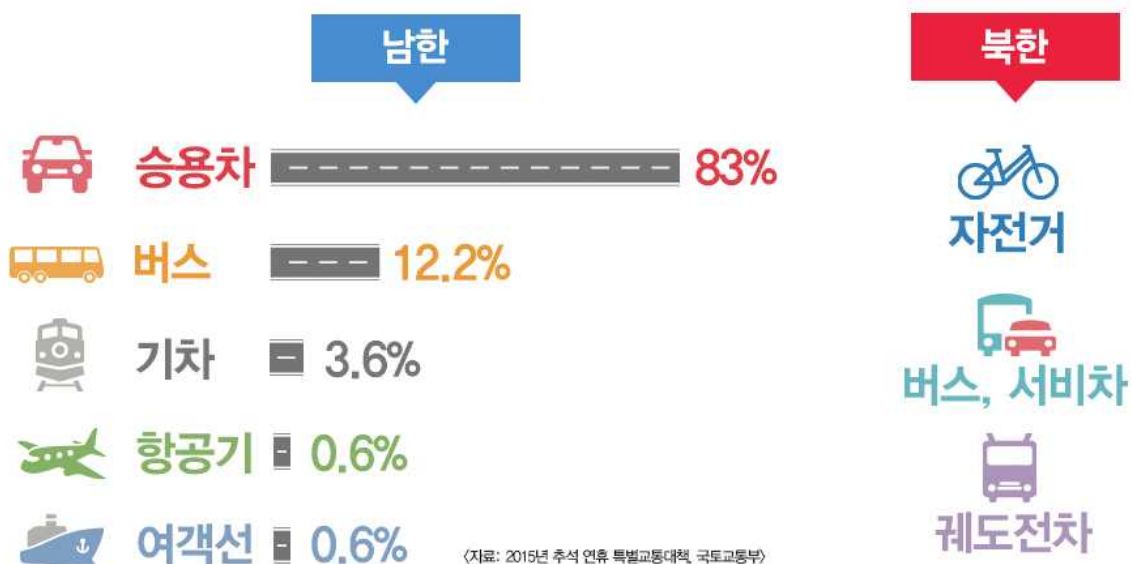
남북 추석명절 교통편

남한은 올해 일주일간의 긴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고속도로 상황과 기차, 버스표 예매가 어려울 듯한데요. 북한 역시 추석에는 '1년 동안 세워놨던 차들도 기지개를 펴는 날'로 움직일 수 있는 운전기사는 모두 만가동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 명절, 남북한의 주요 이동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석명절 이동수단

남한은 자가용, 버스, 기차
북한은 자전거, 궤도전차, 버스, 서비차



〈자료: 2015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국토교통부〉

| 운송수단 | 남한 | 북한 |
|------|-------------------------------------|--|
| 자전거 | 단거리 출퇴근용, 레저용 | 가장 흔한 교통수단 북한 주민 재산 1호 |
| 자가용 | 인구의 42%가 소유 등록차량 1,600만 대(2016년) | 고위 간부만 소유 |
| 버스 | 시내·외, 고속, 공항버스 등 다양 | 평양시내 버스는 40여 개 노선 시외버스는 6개 도시에서 운행 |
| 궤도전차 | 없음 | 레일을 이용한 전동차, 평양에만 존재 지방은 전깃줄을 이용 |
| 택시 | 면허차량 25만5천대(2014년) 요금은 2,800원부터 | 평양에서만 1,500대. 2부제로 운행 요금은 2달러부터 |
| 지하철 |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서울 외 전국 32노선 | 평양에만 존재 평양시민과 외국인들이 이용 |
| 기차 | KTX, SRT, 새마을호 등 열차 다양 | 장거리에 가장 많이 이용 중국, 러시아와 연결된 국제철도도 존재 |

※ 북한의 추석은 하루여서 단거리 이동수단을 이용하며 이용률 통계자료는 없다.

※ '서비스차는 북한 군, 행정기관 트럭들이 돈을 받고 여객을 수송해주는 화물차량이다. 탈북민 조사에 따르면 자전거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다.



철도 및 도로 현황

남한은 도로, 북한은 철도가 발달



| 운송수단 | 남한 | 북한 |
|------|--|---|
| 철도 | 경부선, 호남선, 경전선, 전라선 등 크게 4개 노선으로 구분. 약 670여 개 역 (2016년 기준 12억 8,899만 명 이용) | 두만강행, 온성행, 해산행, 만포행, 신의주행, 덕천행, 해주-은별행, 남포행, 평강행, 개성행, 원산행 등 11개 노선으로 구분, 약 700여 개 역 |
| 도로 | <등급별> 고속도로 1급 - 고속국도 2급 - 일반국도 3급 - 특별광역시도 4급 - 지방도 5급 - 시도 6급 - 군도 7급 - 구도 | <등급별> 행사전용도로 (김정은과 차번호 727만 이용 가능) 고속도로 1급 - 중앙과 도 연결 2급 - 도 연결 3급 - 도군, 군군 연결 4급 - 군리 연결 5급 - 리리 연결 6급 - 마을간 연결 |

※ 남한은 차량 보유 및 이용량이 많고, 북한은 신지가 많아 철도 이용이 많다.

※ 727로 시작하는 차번호는 당 기구에서 후보위원 이상 고위직이 타는 차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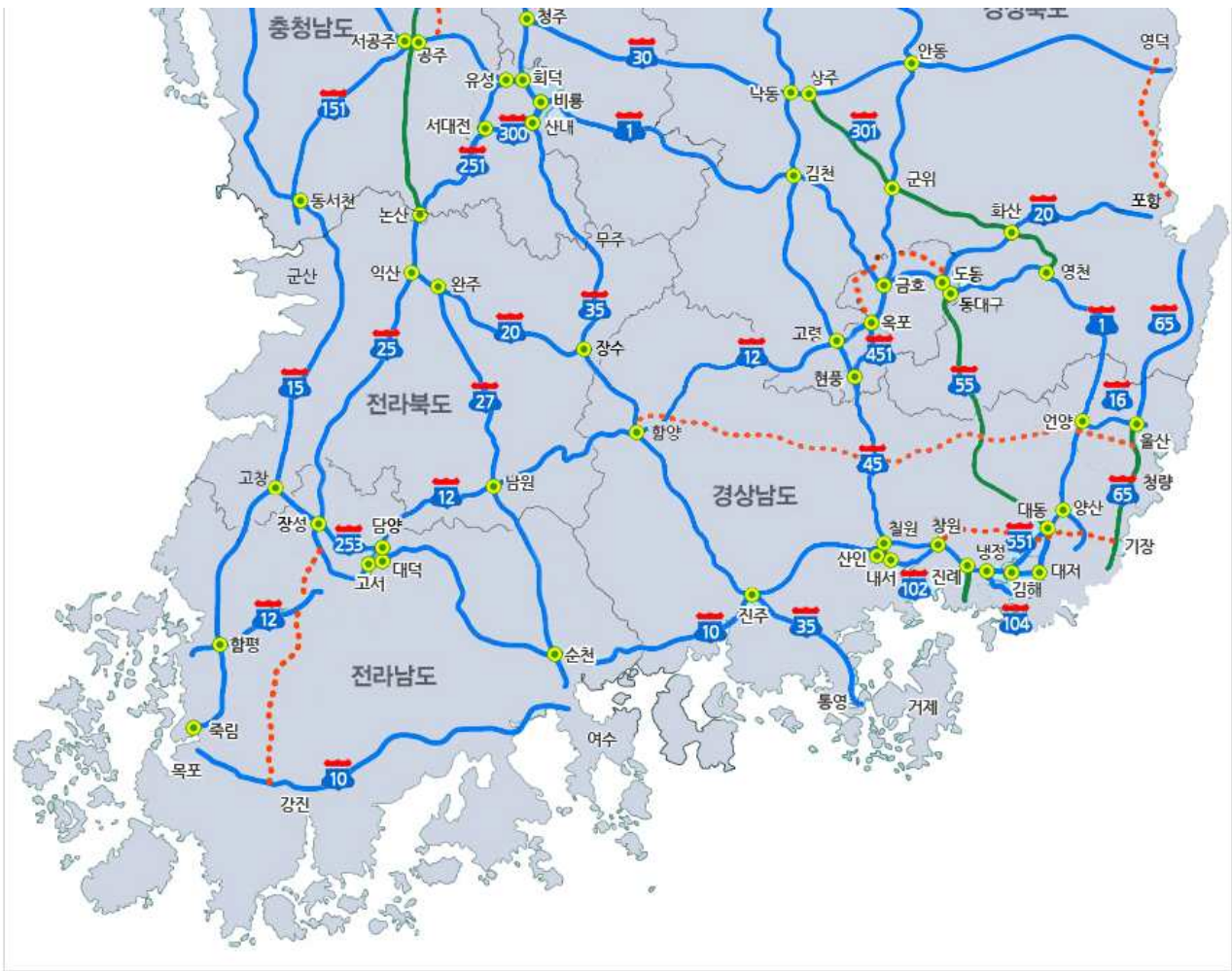


고속도로 및 휴게소

남한은 43개 고속도로, 193개 휴게소
북한은 8개 고속도로, 2개 휴게소 추정

남한





● 이용중인 노선안내

| | | | |
|----------|----------|------------|--------|
| 경부선 | 남해선 | 무안광주·광주대구선 | 서해안선 |
| 울산선 | 익산포항선 | 호남선 | 순천완주선 |
| 당진영덕선 | 통영대전·충부선 | 제2충부선 | 평택계천선 |
| 중부내륙선 | 영동선 | 중앙선 | 서울양양선 |
| 동해·울산포항선 | 서울외곽순환선 | 남해제1지선 | 남해제2지선 |
| 제2경인선 | 경인선 | 서천공주선 | 호남선의지선 |
| 고창담양선 | 대전남부순환선 | 중부내륙선의지선 | 중앙선의지선 |

● 이용중인 민자 노선안내

| | | | |
|----------------|--------------|--------------|-----------------|
| 평택화성·수원광명선 | 노산천안선 | 세종포천선(구리~포천) | 광주원주선 |
| 중앙선(부산~대구) | 서울양양선(강일~춘천) | 동해선(부산~울산) | 서울외곽순환선(일산~퇴계원) |
| 남해제3지선(부산할신항선) | 제2경인선(인천대교) | 인천국제공항선 | 평택시흥선 |
| 용인서울·오산화성선 | 상주영천선 | 수도권제2순환선 | |

● 건설중인 노선 안내

신설 12개

※ 남한은 고속도로 곳곳에 졸음쉼터와 휴게소가 있으며, 휴게소에는 화장실, 식당, 카페, 수유실, 악곡, 쇼핑물, 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다.

북한



※ 북한에는 김정은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주변에 신평각(평양-원산), 서흥각(평양-개성) 휴게소 2개가 있으며, 신평각에는 호텔, 식당, 주유소, 화장실이, 서흥각에는 차와 물을 파는 매점과 주유소, 화장실이 있다.



주유비 및 통행료

남한 휘발유 1,539원 부터
북한은 1,670원

| | 남한 | 북한 |
|-----|---|--|
| 주유비 | 휘발유 1,539~ 2,056원(1ℓ) 경유 1,539~ 2,056원(1ℓ) | 휘발유 1.46달러(한화 1,670원) 경유 1.20달러(한화 1,370원) |
| 통행료 | 서울-경기 2,800원 / 서울-인천 900원 서울-충남 5,300원 / 서울-충북 7,700원 서울-대전 10,500원 / 서울-대구 15,500원 서울-강원 11,200원 / 서울-부산 27,700원 (2종 소형승용차 기준) | 무료 (※ 평양원산고속도로를 제외한 기타 고속도로는 10톤 이상 화물차를 불허해 늦은 밤 교통보안원에게 뇌물을 주고 통과한다.) |

※ 자문_ 이준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자료

〈교과서에 안 나오는 북한의 교통 이야기〉안병민, 통일부 통일교육원
한국교통연구원 북한 교통정보 도로, 철도, 항만 편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12km에 5,000원~ 北 지방서 자전거 인력거 인기” 데일리NK 2017. 6. 16.
“북한의 교통규칙과 교통수단” NK조선, 2013.
“평양 택시 1500대 이상, 기본요금 2달러” VOA, 2016. 3. 29.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통계
e-나라지표(www.index.go.k) 자동차산업동향
위키백과 및 나무위키 검색 등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깊게 뿌리 내리세요”

손수 재배한 토마토로 과채즙 생산하는 김명희 씨

여우비가 지나간 아침, 김명희 씨 부부가 운영하는 과채즙 공장에 새빨간 토마토들이 한 가득 실려 왔다. 추석을 맞아 과채즙 주문이 밀려든 까닭이다. 명희 씨는 12년 전 한국에 들어와 부여 토박이인 남편 이인수 씨를 만나 저온 숙성즙을 생산하고 있다.



🍅 브리핑 연습으로 남편의 과채즙을 알리다

명희 씨는 새벽 4시면 눈을 뜬다. 하우스와 마을 농가들을 둘러 그날 짤 것을 수확하고, 수확한 과채들을 씻고 다듬어 즙을 내다보면 하루해가 저물기 때문이다.

처음 토마토즙을 만들어보려고 제한한 것은 명희 씨였다. 토마토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건강에도 좋다는 생각에서다. 대신 단맛이나 물이 들어간 주스가 아닌 ‘토마토 하나를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즙’을 생산하자고 말했다.

명희 씨의 말에 남편 인수 씨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즙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토마토 특성상 살짝 익혔을 때 영양소 섭취율이 높아진다는 점에 착안해 지금처럼 껍질째 갈아 저온 숙성한 제품을 만들었다.



▲ 김명희 씨 부부가 직접 수확한 토마토



▲ 재배한 토마토를 과채즙 공장으로 운반 중이다

토마토즙은 출시와 함께 ‘굿트래 인증’을 받았다. 굿트래 인증은 부여군 공동 상표조례에 따라 2년 주기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상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덕분에 명희 씨네 토마토즙은 곳곳에서 맛과 영양을 인정받았고, 인수 씨는 명희 씨에게 대표 명의를 넘겨주며 아내를 응원했다.

남편의 외조에 힘을 얻은 명희 씨는 그때부터 저온 숙성 과채즙을 알리기 위한 브리핑 연습을 했다. 남편이 만든 자랑스러운 식품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이에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큰 기업의 OEM 제작을 수주해 바쁜 나날을 보내기도 했다. 조만간 시작될 홈쇼핑 판매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남편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제품들도 차근차근 출시할 예정이다.



▲ 주문들어온 즙을 포장 중인 남편 이인수 씨



▲ 과채즙 작업 중인 김명희 씨 부부

🍓 국어선생님 명희 씨가 인수 씨를 만났을 때

명희 씨와 남편은 운명처럼 만났다. 두 사람은 교회 식사 자리에서 일면식이 있었는데, 명희 씨가 일하는 레스토랑에 우연히 들른 인수 씨가 명희 씨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을 느꼈다고 한다. 그날로 인수 씨는 명희 씨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고, 만남 지 5개월 만에 결혼에 성공했다.

명희 씨는 북한에서 국어선생님이었다. 고위급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덕에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했던 명희 씨는 중학교 때부터 글재주가 뛰어나 벽소설(단편소설보다 내용과 형식이 짧은 북한 소설)과 단편소설로 여러 차례 전국 창작상을 탔다. 이후 청진사대를 졸업하고 중학교 국어선생님으로 일했지만 얼마 안 돼 사고를 당해 교직을 내려놓게 됐다.

명희 씨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건 25살 즈음이었다. 친구들과 시장에 갔다가 만난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저녁거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이를 업고 사탕을 팔고 있는 모습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꽃제비’라 불리는 아이들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어갔고, 시장바구니를 들고 구걸하는 여자들도 흔했다. 명희 씨는 그제야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가족과 함께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북한은 7~8시면 새카매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현란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도 행색이 달라요. 우리는 못 먹어서 빼빼한데, 중국 사람들은 보기 좋더라고요. 나도 저 나라에 한 번 가봤으면 했는데, 사람들이 남한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1997년 중국으로 넘어간 명희 씨는 8년 가까이 현대상선에서 일했다. 자동차나 컨테이너를 실어 운반해주는 회사였다. 그 사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명희 씨와 아버지만 2005년 한국에 들어왔다.



🍅 '당당한 김명희' 를 되찾아준 사람들

한국에 정착하는 동안 명희 씨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탈북민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볼 거라는 의심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명희 씨는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열심히 살다보면 사람들도 명희 씨를 믿어줄 거라는 마음이었다. 그런 명희 씨를 버티게 해준 건 곁에서 응원하고 지켜봐준 사람들 덕분이었다. 특히 명희 씨는 남북하나재단 충남센터 심재숙 차장과 이종구 담당형사에게 고맙다고 했다.

심재숙 차장은 명희 씨가 밤에 자다가도 무서워 전화를 하고,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위로를 해주는 엄마 같은 분이였다. 이종구 형사는 명희 씨가 물건을 사거나 은행 업무 등을 볼 때 일일이 가르쳐주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면 지원서까지 챙겨다주는 분이였다.

가장 고마운 사람은 남편이다. 결혼 후 명희 씨 말투 때문에 연변 아가씨를 데리고 왔느냐며 짓궂게 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남편은 "내가 찾는 귀한 사람이 한국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북에서 보내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명희 씨는 그런 남편의 사랑 덕분에 지금의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 2017년 굿뜨래 행사장에서 설맞이 할인판매 중인 제품들



▲ 김명희 씨 부부가 농사짓는 토마토하우스

🍅 지금 앉은 자리가 꽃자리이니라

명희 씨는 요즘 꿈이 생겼다. 하우스와 공장을 확장하게 되면 직원을 추가 고용해야 하는데, 정직원의 70%를 탈북민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탈북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명희 씨에게 그들과 즐겁게 일하며 함께 정착해나가고 싶다는 바람에서다.

"저는 탈북민들이 한 곳에 오래 정착했으면 해요. 나무가 뿌리를 옮겨 다니면 살기가 어렵잖아요. 새로 뿌리 내리는 데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어딜 가나 처음에는 돌직발(자갈밭의 강원·충청 사투리) 같아도 오래 지내다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주더라고요. 여러 곳을 건전하지 말고, 남이 뭔가 도와주기를 바라지도 말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언젠가 그 자리에서 꽃 피울 날이 오거든요."

통일이 되면 명희 씨는 고향에 공장을 세워 우리 농산물로 저온 숙성증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고 한다.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배우지 못한 것이 한국생활에 큰 걸림돌이 됐던 기억 때문이다. 그리고 만두공장을 만들어 밥을 굽는 아이들에게 만두를 나눠줄 생각이다. 만두는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제일 좋은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 날이 올 때까지 명희씨는 남편을 도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과채즙을 만들어 탈북민의 희망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 탈북민들에게 과채즙 생산 과정을 설명해주는 김명희 씨



▲ 계약 재배 중인 블루베리 농장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김명희 씨

교통체증 사라진 한가위 한민족 대이동

글. 김혜진/그림. 이택중





부산 서울 평양 신의주를
지나는 부서평신
고속철도를 타고
3시간이면
충분하다우.

세계 최고 초고속 고속철도가 우리 통일한국
에서 개통되다니~. 어제 뉴스 보니까 안전
기능도 어마어마하던데? 한반도 경제벨트로
도로, 공항까지 다 개통됐으니 명절 기차표
예매전쟁이나 교통체증은 진짜 옛말이다 애.



그래도 통일한국 교통 하면
뭐니뭐니해도 '한반도순환도로'가
최고지~. 거미줄처럼 아주 정교
하고 체계적인 도로라고 하잖아.

아이고~.
우리 형부
또 시작이네.
잘 알겠다고 전해줘~.

벌써 몇 년째 자기가 한반도순환도로 개통 멤버라고 아주 가관이다.

추석, 청진으로 가는 행복이네 가족



남북한을 오가는 귀성객들을 위해 추석연휴를 10일로 개정하면서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각 교통편 별로 귀성길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자가용 드론인데요. 남북한의 항공기술이 만나 세계에 처음 선보인 4인용 자가용 드론입니다.

KBC뉴스

드론 자가용 운행 시작

고향 다녀올게요!



우와~ 엄마, 저도 자가용 드론 타보고싶어요!

엄마도! 우리 행복이가 나중에 돈 벌어서 엄마 좀 태워줄래?

참 좋은 세상이구나!

자자~, 드론 타령 그만들 하시고 이 멋진
대동강대교나 감상하자구.



어머, 여보 너무 낭만적이다! 예전 같았으면 차
밀려서 벌써 세 번은 싸웠을텐데...



형님 울지 마시라요. 우리 아들과
내가 매주 온다 안 하요?

맞아요 큰아버지. 이제는 교통편이
워낙 좋으니 자주 찾아뵙면 되죠~.

선비정신의 ‘멋’ 어우러져 살아가는 ‘맛’, 경북 영주

프락을 거니는데 달이 사람을 따라오네
매화 언저리를 몇 번이나 들었던가
밤 깊도록 오래 앉아 일어나는 것도 잊었더니
옷과 두건엔 향기 가득, 몸에는 꽃 그림자 가득

-퇴계 이황, <도산, 달밤의매화를 노래함>



가을 어느 날, 옛 길을 걷는다. 지난 일을 생각하니 묵은 그리움이 밀려들었다. 달빛과 꽃향기가 몸에 배도록 걸었다는 이황의 흔적을 따라 걸으며 그 인정스러운 마음을 닮아본다. 선비라면 누구나 사랑했을 그 매화의 향기가, 계절에 관계없이 곳곳에 스민 듯하여 서늘한 가을바람도 포근하게 느껴진다. 이곳은 선비의 땅이다. 영주는 성리학의 근원인 안향의 신위가 있는 소수서원이 있고, 또한 단종애사의 슬픈 역사가 만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아주 오래도록 ‘우리’를 위안하고 어루만져온 곳이기도 하다.

통합과 평화를 염원한 무량수전의 아름다움, 부석사



부석사의 '부석(浮石)'이라는 이름에는 다소 로맨틱하고 환상적인 전설이 있다.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화엄종을 공부할 때 선묘라는 아가씨가 그를 사모한 마음이 지극하여, 죽어서 용이 되어 신라로 돌아오는 의상대사를 호위했다고 한다. 의상대사가 문무왕의 명으로 이 사찰을 세울 때는 도적이 활개를 쳐 방해하는 일이 잦았는데 그 때마다 용이 된 선묘가 무량수전 뒤편의 '부석'을 들어 올려 도적을 쫓아냈다. 어쩌면 용의 호위는 천지가 감응함의 표현이 아닐까. 의상대사가 부석사를 세워 천명하고자 한 '화엄'은 다른 것을 통합하고 어우러지게 한다는 의미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어쩌면 그것은 삼국 통일을 이룩한 문무왕의 염원과 그 맥이 닿은 듯하다. 경계를 넘어 다른 것을 이해하고 하나로 어우러져 통합하는 마음, 그것이 어쩌면 삼국통일을 만들어낸 작은 씨앗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 선묘낭자의 전설을 담고 있는 '부석'

2013년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부석사는 그 자체로 숨 쉬는 유산이다. 무량수전, 삼층석탑, 조사당, 소조여래좌상 등의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국보나 보물이 무수하고 고려와 조선시대 건축물을 한 데 모아놓았음에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전하고 평화롭다. 점 하나 더 찍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아름다움 속에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다. 시공을 초월해 무언가를 꿈꿀 수 있는 공간 같기도 하고, 꿈속을 걷는 것 같기도 하다.



▲ 무량수전 앞에서 위용을 뽐내는 안양루



▲ 보물 249호 부석사 삼층석탑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언급한 대로 부석사의 아름다움은 세 겹의 깊이와 층위가 어우러져 있다. 절까지 들어가는 돌 반 흙 반의 비탈길은 자연과 인공의 조화로움이, 절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천왕문과 요사채, 무량수전까지 이어진 질서정연한 돌축대와 돌계단은 사람의 손을 거친 인공의 미, 무량수전부터 조사당으로 오르는 산길은 떡갈나무와 산죽이 싱그러운 흙길이 조화롭게 이어져 무척 아름답다. 무량수전은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 이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목조건축물로 고려건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유산이다. 무량수전의 기둥이 중앙부가 볼록한 '배흘림 양식'인 것도 독특하고 기둥 윗부분의 나무를 겹쳐 쌓아올린 듯한 공포 부분은 당대의 독특한 건축미를 나타낸다고 한다. 무량수전 앞에 서서 내려다보면 문득, 몇 백 년쯤 거슬러 전설 속의 인물이 된 듯하다.



▲ 고려 건축의 백미를 보여주는 무량수전



황폐한 역사 위에 다시 세운 마음, 소수서원과 순흥 관아터

바람에 실려 오는 그윽한 솔향기가 느껴진다. 눈 닿는 곳마다 옛 기와집이 곳곳에 남아 있고, 귀를 기울이면 아직도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아주 오래된 자취임에도 새롭게 느껴진다. 걷노라면 점점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있었던 근원에 닿는 느낌이다. 지금은 작은 농촌 마을의 풍경이지만, 이곳 순흥면의 옛 지명은 순흥도호부로 기와지붕의 끝과 끝이 이어질 만큼 부흥했던 거대한 도시였다. 고려 때 '한강 이남은 순흥, 한강 이북은 송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지만, 이곳에서 금성대군과 순흥부사 이보흥의 '단종복위운동(1456~1457)'이 실패한 뒤 사람들은 죽거나 흩어지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어 떠돌아다녔으며 번성했던 고을은 쇠락했다.

순흥의 지위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은 백 년쯤 후 풍기군수 주세붕과 이황에 의해 이루어진다. 주세붕은 성리학의 시조인 안향의 고향인 이곳을 기려 1542년 '백운동서원'을 짓고 이 땅을 성리학의 근원으로 명명한다. 주세붕은 자나 깨나 풍기 고을을 먹여 살릴 연구에 몰두했던 실천형 리더였는데, 이때 소백산 토질에 맞는 인삼을 들여와 현재까지 풍기의 대표적인 고을 브랜드로 키워낸 인물이기도 하다. 주세붕 다음으로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황 역시 안민(安民)의 보폭이 넓은 지도자였다. 왕에게 직접 건의해 서원의 지위를 세우고, 1550년 이곳을 명종이 직접 하사한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나게 한다. 이때부터 소수서원은 조선시대 사상의 중심지로, 또 백 년의 상처 위에 빛나는 새 역사를 싹틔우는 공간으로 변모된다.

순흥의 옛 관아터에는 당시 관원들이 휴식을 취하던 후원이 남아 있다. 도호부 후원은 '봉도각'이라는 정자와 연못으로 꾸며진 곳으로 '연비어도(鰲飛魚跳)'라는 현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늘에는 솔개가 날고 연못엔 물고기가 뛰다'는 뜻으로 <중용>과 <시경>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만물이 우주의 이치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한다. 높고 낮음이 없이 귀한 자신만의 생명력을 영위하는 조화로운 세계, 즉 성리학의 정신으로 혼란을 수습하고 흩어진 혼백을 위로하는 방법. 어쩌면 이곳에서의 선비정신은 아픈 역사를 위로하고자 했던 마음에서 시작한 게 아니었을까.



▲ 소수서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소수박물관 내부



▲ 학문을 강론하던 소수서원 강학당

선비의 마을을 감싸 도는 물줄기, 무섬마을



역사는 여기서 돌아들어 마을을 안고 흐르는 물줄기처럼 흘러간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걸 배우기 위해 지난 일을 돌아보는지도 모른다. 무섬마을은 안동의 하회마을처럼 내성천과 서천이 합류한 강물이 태극문양으로 마을을 휘감고 도는 모습이다. 이를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처럼 보인다고 하여 '물 위의 섬'이라는 뜻의 '무섬'이라 한다. '선비마을'이나 '선비촌'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고풍스러운 전통가옥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전쟁이나 천재지변에도 이곳은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다. 이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외나무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지금은 차가 다닐 수 있는 콘크리트 다리가 있지만 2005년 마을을 복원할 때 외나무다리가 다시 놓여졌다. 딱 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나무다리로 길이가 150m쯤 된다. 이 다리를 건널 때는 나이와 적급 같은 서열이 필요 없고 건너편에서 먼저 출발한 사람이 다 건너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양보하고 나누는 삶의 이치가 담겨 자못 따뜻하게 느껴진다.

이곳에는 서로의 경계를 넘어 조화롭게, 사상과 신분을 넘어 어우러지며 살아왔던 전통이 있다. 양반과 상민, 신분에 관계없이 항일운동을 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아도서숙'이란 교육기관을 세워 독립운동을 배려했다. 신분과 이념을 넘어 다양한 사상이 자유롭게 공존한 이곳의 근간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 냄새 나는 곳, 반남 박씨와 선성 김씨(예안 김씨)의 집성촌인 이곳은 '해우당'이나 '만죽재' 등 우리 고택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다. 선비들이 살았던 곳, 먹었던 것, 그 모든 풍경이 과하지 않고 깨끗하게 느껴지는 건 수백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정신 때문일까. 여행은 막바지에 이르렀으나 자꾸만 더 보고 싶고 궁금해진다.



▲ 무섬마을과 외부를 이어주던 외나무다리



▲ 무섬마을 입향시조의 고택인 만족재



▲ 풍기인삼을 포함한 일곱 약재를 넣은 '칠향계'

선비들은 무엇을 먹었을까. 옛부터 이 부근은 인삼의 고장으로 불렸다. 이를 이용해 영주에서는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면 풍기 인삼을 포함해 간대, 천초 등 일곱 가지 약재를 넣어 만드는 '칠향계(七香鷄)'를 손님상으로 냈다. 이는 양반가의 집안 내림 음식으로 400년 전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즐겨 먹던 보양음식이었다고 한다. 한 그릇을 받아드니 인삼 향이 그윽하게 올라와 자연 몸보신이 되는 느낌이었다. 몸도 보신, 마음도 보신되면서 어쩐지 깨끗해진 것 같고 한결 여유로워진 것 같다. 마을을 감아 도는 물처럼 천천히 흐를 줄 알고 헤아릴 줄 알게 된 한 젊은 객(客)이 다리를 건너 선계에서 풍진으로 되돌아간다. 어느 가을 하루였다.

〈글: 김혜진 / 사진: 김규성〉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개 모양으로 빚어낸 추석, 평안도 조개송편

송편은 고려시대때부터 대중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질 정도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음식이다. 추석이 되면 일찍 수확한 올해의 벼로 송편을 만들었기 때문에 '올벼'가 변형된 '오려송편'이라 불리기도 했다. 남북한이 서로 추석을 세는 방법이 다르지만 송편을 추석 음식 중 으뜸으로 치는 전통만은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다. 북한 내에서도 지역별로 다양한 모습의 송편이 발달했는데, 평안도에서는 소를 만들어 넣은 멥쌀반죽을 조개모양으로 만들어 빚어냈다. 한반도에서 가장 예쁜 송편, 평안도 조개송편을 만들어보자.



요리재료

멥쌀가루 300g, 흰팥앙금 100g, 소금 약간, 참기름 약간
송편 색소 : 쪽 가루, 오미자 가루, 치자 가루

Step 1



색을 내줄 오미자 가루, 치자 가루, 쪽 가루는 물에 개어 준비한다.

Step 2



멥쌀가루에 소금을 약간 치고 색소를 부어 반죽한다.

Step 3



색소를 섞은 멥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주며 반죽하고, 색이 연하다면 색소를 더 넣어준다.

Step 4



반죽 가운데를 오목하게 만들어 속을 넣고 송편 모양으로 빚어준다.

Step 5



이쑤시개를 이용해 골을 내어 조개 모양을 만들어준다.

Step 6



만들어진 송편을 찜기에 15분~20분가량 찜주면 완성.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송편

송편은 남북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달했다. 감자가 많이 나는 강원도에서는 감자녹말을 찬물에 반죽해 쫄깃한 감자송편을 빚어냈고, 송편 속에 무생채를 넣은 무송편도 별미로 먹는다. 경상도, 충청도, 함경도 역시 감자로 송편을 만들어 먹곤 했는데, 추위가 매서운 함경도의 경우 언감자로 언감자송편을 만들어 먹었다. 황해도에서는 송편이 작은 것을 '알뭍다'고 부를 정도로 5배 가량 커다란 송편을 만든다. 소도 많이 넣고 넓적하게 반달형으로 만들어 찌낸다. 대체로 북쪽 지역은 송편을 크게 만드는 편이고, 서울과 경기 지방은 작개 빛는 특색을 갖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민주평통 통일활동 소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2017 행정실장 워크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는 지난 8월 사무처 2층 대강당에서 남부·중부·중앙 지역 ‘2017 행정실장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사무처장 특강, 마음열기 게임, 월드카페 토론,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변화와 혁신’이 핵심 주제로 주어졌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특강에서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반도의 평화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말과 함께 “행정실장들이 평화로운 한반도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18기 민주평통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실장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여러 지역 동기들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가졌으며 통일에 관한 7가지 주제에 대해 자유 토론과 발표 시간을 가졌다.

‘민주평통 웹 드라마 기획안 공모전’ 시상식 음식, 간첩, 토지 전매, 위장 결혼 등 독특한 소재로 현실적인 문제, 갈등 그린 3개 작품 선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는 지난 6월 28일부터 한 달간 ‘통일 대한민국 미래상’에 관한 웹 드라마 기획 공모전을 실시했다. 평화통일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는 이번 공모전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진행됐으며 드라마 제작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도록 했다. 그 결과 총 26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1~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남면복념>, <우리는 하나요>, <리옥분을 찾아서>가 순서대로 1·2·3등에 선정됐다. 이에 황인성 사무처장은 “냉면, 간첩, 토지 전매, 위장 결혼 등 독특하면서도 공감 가는 소재를 발굴하고, 특히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갈등을 풀어가며 해법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통일 이후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이면서도 긍정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이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1등을 차지한 안정민·최우식 씨의 <남면복념>은 남한 청년이 운영하는 부평면옥집 옆에 북한 처녀가 평양면옥집을 차리면서 벌어지는 갈등과 요리전쟁, 사랑 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려냈고, 2등에 선정된 김선영 씨의 <우리는 하나요>는 통일 후 북한 땅의 신토지규제정책이 도입되면서 드러나는 땅 투기 및 위장결혼 문제를 다뤘다. 3등 박성은·임은경 씨는 탈북녀 리옥분과 남한남자 강수철 사이에 태어난 강리소유가 어느 날 사라진 엄마를 찾다가 과거 ‘리명월’이라는 가수로 활동했던 엄마가 북한 간첩이었음을 알게 되는 추리휴먼 드라마 <리옥분을 찾아서>를 선보였다.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다양한 소재로 그려낸 수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1등 300만 원, 2등 100만 원, 3등 30만 원)과 웹 드라마 제작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시민들의 지혜를 담은 통일 그릇이 됩시다”

제18기 민주평통 부의장·협의회장 합동 워크숍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음력 칠석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제18기 부의장·협의회장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8월 28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된 워크숍에는 국내, 해외 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회장 252명이 함께 했으며, 일정은 이틀에 걸쳐 △개회인사 및 부의장 소개 △지역협의회장 임명장 수여 △토론회 △특강 △업무보고 △지역별 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 속에서 찾는 생활밀착형 통일 활동”이 강조된 제18기 합동 워크숍 현장을 소개한다.



국민 속으로, 국민과 더불어, 국민과 하나되어

홀 안을 가득 채운 250여 명의 위원들 얼굴이 사뭇 진지하다. ‘함께 걷는 평화의 길, 함께 여는 통일의 문’이라는 슬로건처럼 18기로 임명된 부의장, 협의회장들의 마음도 단단한 각오와 설렘으로 무장된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이번 자문회의는 ‘국민 속으로, 국민과 더불어, 국민과 하나 되어’라는 활동 전략 아래 그간의 민주평통 활동을 깊이 성찰하고 혁신적인 조직 운영방향을 모색, 실천해야하기 때문이다.

첫 순서에는 황인성 사무처장과 김덕룡 수석부의장의 인사 및 소개가 있었다. 이날 제18기 위원들과 첫 상견례를 가진 황인성 사무처장은 “18기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통일평화정책에 따라 그에 걸맞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민심을 반영한 현장형 정책의 확립을 위해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민주평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룡 수석부의장은 “한반도 평화는 시대적 소명이자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과 함께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가 국민 통합과 화합에 앞장 서는 리더십을 발휘하자”고 말했다.



▲ 김덕룡 수석부위원장



▲ 제18기 협의회장 임명장 수여식



▲ 황인성 사무처장

이어 자문위원들을 보좌할 사무처 간부 위원 소개와 제18기 협의회장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임명장은 김덕룡 수석부위원장이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수여했으며 전국 시·군·구를 대표하는 228명의 협의회장들이 임명됐다.

통일은 농부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

토크 콘서트는 4명의 패널과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변진홍 한국중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 곽중문 한겨레중고등학교 교장이 참석했으며, 진행 방식은 '제18기 민주평통에게 바란다'는 국민 인터뷰 영상과 자문위원들의 질문을 통해 민주평통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 사회자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 '제18기 민주평통에게 바란다' 토크콘서트

이날 질문으로는 민주평통의 국민외견 수렴 방안과 통일교육 프로그램 방향, 지역갈등 해결 노하우, 젊은 세대들의 통일 공감 형성 방법, 탈북민 정착 등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으며, 각 패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의견들을 내놓았다.

이에 과거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창수 원장은 평통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여론수렴'과 '자문건의'라고 강조하며 "협의회는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착된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서 얻은 지혜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진홍 사무총장은 "우리 안의 평화실현이 우선"이라며 "평통 안에서부터 진보, 보수 등 남남갈등을 해결하고 각 협의회는 지역 통합을 이끌어내는 평화 정착 사업을 위해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 변진홍 한국중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



▲ 곽중문 한겨레중고등학교 교장

김현철 교수는 “젊은 세대에게 설득력 있는 통일 개념을 심어주려면 통일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유토피아식 접근 방식을 벗어나,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며 “통일은 도둑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마음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중문 교장은 “민주평등의 활동은 남북이 바라보는 통일의 거울”이라는 말과 함께 “이제는 탈북민을 배려나 도움의 대상이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탈북민 우수정책’이라는 키워드를 ‘탈북민 사회통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민 인터뷰 영상’에서는 자문위원들이 탈북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의 소통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과, 청소년 문화에 통일을 접목시켜 그들 스스로 통일을 알리고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 이수훈 경남대 교수



▲ 강의를 듣는 자문위원들

남북간 국익을 증진하는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둘째 날에는 이수훈 경남대 교수가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특강을 진행했다. 이수훈 교수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간 화해협력과 핵 없는 한반도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라는 문재인 정부의 3가지 기조에 대해 설명하며 이와 접목한 국방, 통일, 외교 분야의 방향성을 짚어주었다.

특히 통일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따라 동해권 에너지 및 자원 벨트, DMZ 환경 관광벨트 구축을 비롯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재개, 체육·종교 분야 교류, 거레말근사전 편찬, 북한인권 개선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교류 활성화와 국민의 통일공감대 확산 방향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외교 분야에서는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로 아래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국민외교와 공공외교를 강화해 국익을 증진하고 국민과 정부간 쌍방향 소통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 지역별 오리엔테이션 시간

이어 새로 임명된 부의장과 협의회장들을 위한 업무보고 시간을 가졌다. 기획국에서는 김안나 기획조정관이 민주평등의 기능을 비롯해 조직체계, 연혁, 예산, 법령, 그리고 제18기 민주평등의 활동 목표 및 방향에 대해 보고했고, 자문국에서는 김정준 통일정책자문 위원이 통일정책자문국의 주요 업무와 역할, 정책건의 종류 및 성안과정, 자문위원 연수 및 여론수렴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국에서는 전남경 위원활동지원국장이 제18기 자문회의의 위촉 현황을 비롯해 3분기로 진행되는 지역운영위원회 및 정기회의의 일정, 10.4 정상선언 등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 및 포상, 예산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지역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각 협의회장들간의 네트워킹과 제18기 자문회의의 지역조직 운영방향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참가 소감

통일은 우리 미래이고 의무입니다



장혜숙 부의장(광주지역회의)

‘통일은 농부와 같이 인내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무척 공감이 갔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 지역협의회 회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이 발휘되도록 동력을 이끌어내는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박인범 회장(경기 동두천시협의회)

지금은 온 국민이 노력하고 협조해 서로의 이해를 얻으며 통일로 한 발씩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저 역시 동두천시 위원들과 더불어 시민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의 올바른 통일관, 민족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통일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나가겠습니다.



강영자 회장(부산 동구협의회)

17기에 이어 18기를 맡게 돼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통일은 우리의 미래이고 의무입니다. 한겨레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고 통일을 준비해나가는 부산 동구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정찬주 회장(인천 남동구협의회)

15기부터 민주평통 협의회장을 맡아왔는데, 이번 워크숍 모임은 더욱 즐겁고 편안했던 느낌입니다. 저희 남동구에는 1,200여 명의 탈북민이 살고 있는데 이번 18기의 방향과 같이 ‘국민 속에서 통일을 찾아가는’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QUIZ EVENT!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 몇 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일까요?

응모기간 2017년 9월 15일~10월 9일까지

< 설치근거: **헌법 제** □ □ 조 >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참여방법 안내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아래에 비밀댓글로 남겨주시면 30명을 추첨해
2천 원 상당의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응모기간 2017년 9월 15일~10월 9일까지
- 응모방법 아래 비밀댓글로 숫자를 적어주시되,
휴대폰 번호도 남겨주세요
- 경 품 편의점 음료 상품권 (2천 원 상당) 30명





통일·역사 관련 책 읽고 인증샷·감상평 응모하세요!

독서의 계절 가을입니다.

통일 및 역사와 관련된 책을 읽고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책을 구매하실 수 있는 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감상평이나 추천평을 써 주시면 당첨확률 UP!)



◆ 참여방법 안내 ◆

- 응모기간 2017년 9월 15 ~ 10월 9일까지
- 응모방법 인증샷 또는 감상평 응모하기
- 경 품 모바일 문화상품권 2만원 상당(3명)



응모하기

추석EVENT!

온가족이 함께하는 복불복 행복한 통일 사다리 타기 게임!

응모기간 2017년 9월 15일~10월 9일까지



참여방법 안내

1~5번 중 번호를 골라 응모해주시면
행운을 잡으신 20명을 추첨해 경품을 보내 드립니다.

- 응모기간 2017년 9월 15일~10월 9일까지
- 응모방법 비밀댓글로 원하는 번호 입력
- 경 품 햄버거세트(5명), 모바일 커피교환권(5명) 편의점 음료교환권(10명)

